

文-安 호남인사 주축 캠프... 텃밭 민심잡기

文, 전윤철·김상곤·김효석 선대위원장...호남배려 임종석 기용 安, 최경환 경선선거본부장... 이용주·송기석·윤영일도 중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경선에서 승리하기까지 호남 출신 인사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두 후보의 캠프는 호남인사들이 주축을 이뤘다. 이제 당 후보가 되면서 당과 협의를 통해 대선캠프를 재구성하겠지만 그때도 호남인사들이 집중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그만큼 두 후보가 본선에 서도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후보 캠프=일단, 임종석(장흥)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하는 비서실장이란 중책을 맡긴 것은 호남 배려 차원이었다. 특히 임 실장은 경선 직후 "정권교체는 간절한 마음이 모여져서 이뤄진다"며 당내 통합과 화

합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전윤철(목포) 전 감사원장, 김상곤(광주) 전 경기교육감, 김효석(장성) 전 의원, 장영달(남원) 전 의원 등 공동선대위원장 8명 중 절반이 호남 출신이었다.

본부장급에서도 송영길(고흥) 총괄본부장, 강기정(고흥) 상황실장, 이용섭(함평) 비상경제대책단장, 김태년(순천) 특보단장, 윤영찬(전주) SNS본부장, 신경민(전주) TV토론 본부장 등이 호남 출신으로 문 후보 승리에 기여했다. 박광은 수석대변인도 호남 출신으로 승리의 일등 공신 중 한 명이다. 문 후보는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을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김 전 원장은 광주이고 출신이다. 민주당 소속의 광주·전남의 유

일한 현역인 이계호 의원과 전복의 이춘석 의원도 문 후보를 도왔다.

문 후보는 "당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평소 지론에 따라 대선캠프는 당 지도부에 구성을 일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더큰캠프 조직본부와 총무본부, 전략본부, 정책본부 등은 당과 협의를 통해 재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 후보=지난 2012년 진심캠프 출신 인사들과 호남 출신 인사들이 캠프의 주요 구성원이다. 우선,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이 '국민캠프'를 총괄하는 경선선거본부장을 맡았다. 특히 최 의원은 흥행에 대박을 기록한 이번 국민의당 전국 순회경선에서 안 전 대표와 모든 일정을 함께하며 동고동락했다.

최 본부장 아래 국민참여·미래기획·국민소통·국민정책본부 등 4본부가 있는데 모두 호남의 초선 의원들이 본부장을 맡았다. 미래기획본부장에 이용주 의원(여수), 국민소통본부장에 이용호 의원(남

원·임실·순창), 국민참여본부장에 최경환(겸임)·송기석 의원(광주 서갑), 국민정책본부장에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으로 조직을 꾸렸다. 캠프 정책실장을 맡았던 채이배 의원은 군산이 지역구다.

캠프 수석대변인은 공석이였다. 국민의당 초대 수석대변인이자 안 전 대표와 매우 가까운 사이인 손금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당의 '주포'로 인정받는 김경진 당 수석대변인이 선대위에서 등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광주 출신 정기남 홍보위원장은 공개적인 직책을 맡지 않았지만 안 전 대표에게 선거전략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경록 대변인은 장성 출신으로 안철수 후보의 그림자로 불린다. 고흥 출신인 김철근 서울 구로갑 지역위원장도 캠프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안 후보 자문그룹의 일원인 통일 전문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전주 출신이다.

국민의당 경선 흥행 주역 박지원 대표

경선 관리·'文 저격수' 선봉 지지를 상승 견인 '安風' 기획

孫 영입 경선을 합의 이끌어

국민의당 경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안철수 바람인 '안풍(安風)'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배경에는 정치 9단 박지원 대표의 관록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박 대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았던 국민의당 경선을 앞두고 안철수-손학규 예비 후보의 룰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물론 당력을 총동원, 전국 순회경선의 흥행도 견인했다. 당초 1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던 경선 참여 인원은 전체 당원(19만6000명)에 육박했다. 소수 정당인 국민의당으로서 사실상 경선 대박을 현실화시킨 것이다.

이 같은 흥행에 힘입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은 20%를 넘어서면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 지지율도 10%대 중후반을 나타내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박 대표는 각종 당내 회의의 발언과 SNS를 통해 각종 이슈를 만들어 내며 민주당과의 경선 경쟁의 최일선에서 맹활약했다.

박 대표는 국민의당 호남 경선에서 승리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 민주당이 '보수 타이어에 대한 지지'로 폄하하자 즉각 문재인 전 대표는 '핑크 난타어'라고 받아치며 민주당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박 대표는 이후에도 문 전 대표의 아들 취업 문제, 문 전 대표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등 각종 이슈에 감각적으로 대응하며 민주당과 문 전 대표를



근축스럽게 만들어 공중전에서 국민의당이 우위에 서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표의 활약은 당 지도부의 측면 지원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적 내공을 증명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박 대표와 한 팀이 되기보다는 각종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당내 대변인단의 역할 실종 등도 큰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 대표는 취임 이후 당내 현안과 관련한 각종 스트레스로 탈모 현상이 생기는 등 마음고생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대표 핵심 측근은 "박 대표가 한 편으로는 당내 경선 관리를, 다른 한편으로는 문 전 대표의 저격수 역할을 하는 등 갖은일을 도맡아 했다"며 "여기에는 지난 총선에서 약속했던 '호남 주도의 정권교체'를 현실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화전당 3008억 ... 정부보유 비싼 건물 3위

경부고속도로 11조 1위

광주 동구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 소유 건물 중 장부가액 3008억원으로 세번째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보유한 건물과 시설물을 모두 포함한 전체 재산 중 가장 비싼 것은 경부고속도로로 파악됐다.

정부가 4일 국회회의에서 의결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지난해 국유재산은 1039조1925억원으로 전년(990조1975억원)보다 48조9950억원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 국유재산이 10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국유 건물, 유·무형자산, 고속도로 등 국유재산 중 가장 비싼 것은 장부가액 10조9480억원에 달하는 경부고속도로였다. 국유 건물뿐만 아니라 보면 정부세종청

사 1단계의 장부가액 4716억원으로 1위였다. 2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2단계(4263억원)였다. 정부세종청사 1, 2단계의 총 가치는 8979억원에 달했다.

광주 동구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장부가액 3008억원으로 국유건물 중 3위였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2264억원), 정부대전청사(2263억원)가 차례로 4~5위에 올랐다. 국가 무형자산 중 예술품 관리청이 보유한 4세대 국가종합정보망(유니패스)이 취득가액 1007억원으로 가장 비쌌다. 전년 1위인 국제청의 차세대 국제행정시스템은 875억원으로 2위로 밀려났다. 고속국도 중에선 경부고속도로가 1위에 오른 가운데 서해안고속도로(6조5391억원), 남해고속도로(6조2891억원) 등이 2~3위를 차지했다.



모기 유충 서식지 방역

광주시 북구청 보건소 직원들이 4일 북구 임동 광주천변 모기유충 서식지 등에서 집중 방역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의회 선거법 위반 동료의원 선처 탄원서 논란

전남도의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피선거권 제한을 받을 처지에 놓인 동료의원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도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Y의원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았다.

전체 57명의 의원 중 56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조만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선거법 위반은

Y의원 본인 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의도하지 않은 실수 때문으로 들었다"며 "이번 일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것은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최근 전남도의회 의원의 비리와 의장의 비리 연루 의혹 등이 겹쳐 탄원서 추진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의원직을 자진 사직한 데다, 임명규 도의회 의장이 비리에 연루되는 등 도의회에 대해 끈질기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전남도, 고용 우수기업 자금 지원·세무조사 면제

전남도가 도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해 자금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4일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채용 확대 분위기 진작을 위해 '2017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조기 공고했다"고 밝혔다.

'고용우수기업' 대상은 전남에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가동(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중이며, 최근 1년간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인증패'가 수여되고, 기업당 고용환경개선자금 2000만원이 우선 지원된다. 또 인증일부터 2년간 전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3억원, 이자 지원 2.5%) 대출, 중소기업 청년인턴 우선 지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중소기업 우수 제품 포상 우선 지원, 청년 수출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고용우수기업 실적 평가 기준일은 오는 9월 30일이고, 신청 기간은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다. 최대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총-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